

# 도, 시군과 문화도시 선정 이끈다

지난해 익산·완주 선정 이어 올해는 이달 말 선정 예정... 대상은 군산·고창 등 2개 시군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예비문화도시 사업현장을 방문 예비문화도시 추진상황 및 현장평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문화도시 선정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도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추진 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부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한다.

도내에는 지난해 완주군(2025년 까지)과 익

산시(2026년 까지)가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5년간 사업비 2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문화거점 공간조성, 주민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문화인력 양성, 도시문제를 문화로 해결하는 문화가버너스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와 완주군에 이어 제4차 문화도시 선정 대상은 군산시와 고창군 2개 시군이다.

군산시는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군산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가치를 나누고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 문화공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고창군은 '문화, 어머니 악선이 되다. 치유문

화도시 고창'을 비전으로 고창의 세계유산과 오래된 생활문화 유산에 깃든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양식에 기반해 현대사회가 안겨준 개인과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치유문화가 생활화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는 2일 군산시 7일 고창군 예비문화도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이달 말 제4차 문화도시 선정 시까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군산시와 고창군의 문화도시 비전에 부합하는 현장발표 및 대응전략을 마련해 제4차 문화도시에 군산시와 고창군이 함께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경성 기자

##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전주문화재단, 14일까지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이팝프렌즈 후원회(회장 나춘균)은 오는 14일까지 '2022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 후보 예술인을 추천받는다. 3일 밝혔다.

수상후보자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전주에서 문화예술활동의 창작·발표·기획을 진행한 문화예술인으로, 문화예술기획자의 경우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 한정한다. 이후 선정된 총 4인에게는 각 300만원씩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예술가들의 지속가능한 창작의욕을 후원하기 위해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를 발족했다.

현재까지 15개 기업이 8,000여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고, 한국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와 연동해 추가적으로 6,000만원을 확보해 총 1억 4,0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특히 후원회의 광범위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다. 현재까지 210여 명의 후원인들이 정기결제를 통해 매월 240여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한편 지역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동력을 위한 '이팝프렌즈 예술상'은 첫해인 2021년 4명의 신진, 중진 예술인과 문화기획자를 선정하며 시작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매년 지역예술가와 기획자를 후원할 수 있게 토양을 마련해 준 기업과 후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열악하고 어려운 예술현장에서 창작을 이어 나가는 예술인들을 발품 시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춘균 회장은 "예술후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이 꽃피고 문화예술로 시민 모두의 삶이 위로받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며 "이번 시상상을 통해 예술인들을 응원하는 예술 후원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이병기·최명희 청년문학상 시상식

### 이병기 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 - 유수원  
고등 부문 - 김평강

### 최명희 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 - 최윤정  
고등 부문 - 백채운



〈사진 왼쪽부터〉김병용 흥불기념사업회 대표, 김평강 학생, 유수원 학생,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최윤정 학생, 백채운 학생, 오창환 전북대신문방송사 주간.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흥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2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일 오후 전북대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눈 속의 불꽃'을 쓴 유수원(서울한영대 유아특수재활학과 1년) 학생이, 고등 부문에는 '예배시간'을 선보인 김평강(인안예고 문창 3년) 학생이 선정됐다. 또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당신의 눈 속으로 눈송이 하나가 날아갈 때'를 쓴 최윤정(동국대 문창 4년) 학생이, 고등 부문에는 '노인 학생 제도'를 쓴 백채운(경북비즈니스고 3년) 학생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융점중 아버지를 묘사한 시 부문 대학부 당선작 '눈 속의 불꽃'은 시적 표현이 촘촘해 완성도가 높고 내재된 문학성이 뛰어나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또 시 부문 고등부 수상작 '예배시간'은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사랑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술한 폭력을 환기시키며 삶의 경험을 시로 끌어온 상황 설정이 절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적 표현에 힘이 느껴져 당선 영예를 안았다.

이 소설 대학부 당선작 '당신의 눈 속으로 눈송이 하나가 날아가는 서사의 열매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젊음이라는 패기를 보여줬으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문장과 감각적인 묘사가 월등한 작품으로 꼽혔다. 고등부 당선작 '노인 학생 제도'는 학교의 존재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임시방편으로 노인을 학교로 보내 편입시킨다는 설정이 매우 참신했으며 따뜻함이 돋보이는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문학상에는 242명이 623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시 부문에는 141명이 519편을, 소설 부문에는 101명이 104편을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시 부문 심사는 송기영·유현아·송희·심옥남 위원이, 소설 부문 심사는 장미리·채정·서철원·김미영 위원이 맡았다.

김동원 총장은 "미디어 범람의 시대에서도 시와 소설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이 반갑고 기쁘다"면서 "전북대학교의 문화적 자부심인 '이병기' 시인과 '최명희' 소설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쓰고...'

순창 옥천골 미술관서 6일까지 '어색한 그림책'展

순창군이 운영하는 옥천골 미술관과 섬진강 미술관은 유명작가의 초대전뿐만 아니라 순창군민을 예술작가로 하는 기획전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옥천골 미술관에서 오는 6일까지 풍산초등학교와 풍산초등학교평생학습원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창작을 해낸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들의 색다른 한 권 그림책 전시회(어색한 그림책展)가 진행된다.

어색한 그림책 전시회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시회로 풍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작가로서 제작한 원화 27점, 그림책 22점, 병설유치원의 어린이들의 작품 5점, 그림책 가치다너 22점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어색한 그림책 전시회는 순수한 어린이들의 눈으로 창작한 작품세계로서, 성인작가와는 다른 문화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2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학부모들도 같이 문화생활을 체험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작품을 통해 자녀들과 소통하며,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오는 주말에는 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람을 위해 옥천골 미술관을 방문할 전망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골미술관(☎063-650-1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부안 보안면사무소 신청사, 전북 건축문화상 수상

작년에 개칭한 보안면사무소 신청사가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수상받았다.

지난 2일에 열린 '제2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서 보안면사무소 신청사는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에서 은상(3위)을 수상받았다.

보안면사무소 신청사는 리인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가 설계했으며, 한옥의 선형

을 형상화한 입면디자인과 한옥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재료를 사용, 건축준공시부터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

보안면사무소 신청사는 지난 2020년 7월에 착공, 지난해 6월에 완공된 건축물로 지상1층 연면적 799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NH 농협 추진주매일 창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진포건강미 (군산농협)

미성청결미 (서군산농협)

못잊어신동진 (옥구농협)

옥이슬 (옥산농협)

아리울 (동군산농협)

큰들의꿈 (대야농협)

옥토진미 (회현농협)

군산짬뽕 라면 (군산원예농협)

농협중앙회 군산지부  
김대호 지부장

군산농업협동조합  
박형기 조합장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김기수 조합장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봉구 조합장

옥산농업협동조합  
박규석 조합장

동군산농업협동조합  
박영근 조합장

대야농업협동조합  
민윤기 조합장

회현농업협동조합  
김가동 조합장

군산원예농협  
고계곤 조합장